

한국 증시, 3400 시대 개막 정책·유동성·외인매수 삼박자

정부 대주주 과세기준 50억 유지
150조 규모 국민성장펀드 추진
美 연준 금리인하 기대감도 확산
이달 외국인 5조 이상 순매수
AI 혼풍에 삼성·하이닉스 신고가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400선을 돌파했다.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고, 추가 증시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영향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유동성 확대) 가능성, 미국발 반도체 혼풍,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란 호재도 살아 있다. <관련기사 3면>

15일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35% 오른 3407.31으로 장을 마쳤다.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점이다. 외국인이 증시 상승을 견인했다. 지난달에는 ‘팔자’였던 외국인은 이달 매수로 전환한 뒤 이날까지 5조487억원가량을 순매수했다. 시가총액도 약 2800조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이처럼 한국 증시가 신천지를 여는 데는 시장 친화정책이 컸다.

정부는 이날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키로 했다. 올해 7월 관련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으나 공식적으로 철회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약’에 참석해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증시가 나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3400선을 넘어선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가 전 거래일 보다 11.77 포인트(0.35%) 오른 3407.31 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이날 증시 활성화 대책도 내놴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한다. BDC는 비상장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일반 투자자도 간접적으로 비상장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도 있다. 11일(현지 시간) 8월 미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전망치 수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예상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시장에선 이번주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기준금리가 연내 3번 인하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연준이 금리를 빠른 속도로 인하하면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압력이 커진다. 미국 투자자 로선 환율 변동에 따

른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해외 주식에 투자할 유인이 늘어난다.

미국에서 불어 온 인공지능(AI) 혼풍도 증시에 호재다. 미국 소프트웨어(SW) 기업 오라클은 2분기(4~6월) 매출의 30배 수준의 계약잔고를 발표하며 클라우드 수요가 여전히 강력함을 증명했다. 이날 삼성전자(1.46%)와 SK하이닉스(0.76%)는 나란히 증시를 견인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한때 34만원 선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가를 거듭 갈아치웠다. 삼성전자도 장중 52주 신고가(7만7600원)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증시 추가 상승의 동력을 기업에서 찾는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속성과 추가 상승은 거시경제 호전과 실적추정치상향 여부에 달렸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D램·낸드 공급부족 온다 삼성·SK, 실적개선 국면

HBM 증설 집중, 범용 메모리 타격
낸드·D램가격 반등, 업황회복 가속
차세대 HBF시장 선점 경쟁도 확대

HBM(고대역폭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범용 D램과 낸드플래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메모리 슈퍼사이클 재현 기대감이 커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2026년 메모리반도체 업황이 인공지능(AI) 시장의 수요 강세에 힘입어 공급 부족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투자 금융 회사 씨티그룹은 내년 D램과 낸드플래시의 공급 물량이 각각 수요 대비 1.8%, 4%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들이 HBM 생산능력 확대에 설비 투자를 집중하면서 범용 D램과 낸드 증설 속도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낸드 시장 점유율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업황 개선이 실적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올 2분기 기준 점유율은 삼성전자 32.9%, SK하이닉스 21.1%를 기록했다.

제품 가격 상승 또한 업황 회복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낸드시장은 2021년 메모리 초호황 시절을 지나 전방 시장인 스마트폰과 PC시장의 침체로 인해 2022년부터 지난해 전반까지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그러나 같은 년도 하반기부터 주요 공급업체들의 전략적 생산 조정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 낸드 제조업체들은 생산량을

줄이고 비트 공급 증가율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공급 조절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조치의 결과로 올해 2분기부터는 재고가 점차 감소했으며 PC 및 스마트폰 등 주요 제조업체들의 수요가 회복됐다. 이에 D램과 낸드 가격은 각각 전분기 대비 5~10%, 3~8%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AI 기술 발전에 따라 낸드의 차세대 제품인 고대역폭낸드플래시(HBF)의 구매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HBF는 HBM과 같이 낸드를 수직으로 쌓은 고성능 반도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8월 차세대 낸드 시장 선점을 위해 샌디스크와 HBF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특히 범용 D램 생산능력을 경쟁사 대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 흐름이 뚜렷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삼성전자는 내년 초까지 평택 제4캠퍼스(P4)에 내년 초까지 1c(6세대 10나노급) D램용 설비 투자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P4는 삼성전자의 첨단 반도체 팹으로 총 4개의 페이스(ph)로 나뉜다. 회사는 낸드와 D램 양산을 범용하는 하이브리드 라인 ph1과 D램 양산 라인인 hp3에 설비투자를 완료했다. 현재 hp4에도 D램 설비투자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명섭 iM증권 연구원은 “내년에는 HBM 업황이 둔화될 전망이나 경기 침체가 없다면 D램, 낸드 모두에서 업계 생산 증가율이 수요 증가율을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구형 D램과 낸드 업황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공사비 급등에 분상제 단지 분양가 인상 예고

코로나 이후 공사비 22% 급등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 개정

시세 대비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도 분양가가 뛴 전망이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공사비가 뛰면서 최근 5년간 20% 이상 급등했기 때문이다.

15일 국토교통부가 정기고시한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돼 직전 고시된 m²당 214만원에서 217만4000원으로 1.59% 상승했다. 3.3m²(1평) 당 717만

4200원 꼴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중 하나다. 16~25층, 전용 60m² 초과~85m² 이하의 지상층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와 함께 서울에서는 강남3구와 용산구 등에 적용되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가 본격 상승한 것은 2020년 하반기부터다. 지난 2020년 3월 m²당 178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5년

사이 무려 22.1%(178만원→217만4000원)나 올랐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지역사랑상품권 최대 20% 할인

추석 민생 안정대책당정협의회
농축산물 성수품 공급량 대폭 확대
할인지원 사업 500억 역대최대 투입

당정이 추석을 앞두고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7~20%로 확대해 연말까지 10조원 이상을 발행하겠다고 했다. 또한,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15대 성수품 공급량을 대폭 확대하고 할인 지원 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 원을 투입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현행대로 50억 원 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석 민생 안정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족 최대 명절 추석에 민생·경제를 흐트러짐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했다.

이날 협의회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에 정책위의장 등 당의 정책 중역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



▲조은희 “한류 돌풍, 국내산업·창작자 권익 환류되는 IP 기반 마련해야”
▲우원식, 현재 사무처장 접견… “개헌으로 새 시대상 담아내야”
/사진 뉴시스

▲강훈식 비서실장 “추석 정전 없도록 철저히 대비… 전력 안정화 대책 마련도”
▲서왕진 “국힘은 내란 옹호 세력… 제도권 바깥으로 몰아내야”

▲이석연 통합위원장 “국정운영, 與논리로만 할 수 없어… 모두의 대통령 돼야”
▲임이자, 대정부질문서 “李 탄핵안 발의하라”… 與 “대선불복” 고성